

문서번호 : 세경연 제21-005호

배포일시 : 2021. 02. 18.

보도일시 : **오전 10시 이후**

제 목 : 세계경제연구원(IGE) 웨비나 개최 안내

(2021년 2월 18일, 서울)-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오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국제통상체제의 미래: 미국의 對아시아 통상전략 향방 및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사로 참여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제프리 샷(Jeffrey Schott)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유산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겠지만, 정책의 내용과 실행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대신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재가입, 다자주의 복원,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문제, 반민주주의적 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의 현안을 보다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중정책은 “협력과 경쟁, 대결의 3요소가 적절히 융합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상호간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정치적으로 단기간에는 철폐가 어렵고, 미중 무역합의 1단계 또한 그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수준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1단계 합의이행을 고수하면서도 이전 정부에 비해 포용적이고 실용적으로 통상정책과 외교적 정책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상질서의 패권을 위한 양국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신장 및 홍콩,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양국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 준칙 개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 권한, 디지털 무역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무역 규칙의 재편에는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TPP 재가입에 서두르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이 향후 미국의 신규 무역협정 체결 및 기존 협정 수정 등에 하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USMCA를 토대로 노동시장개혁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무역 및 통화 부문 챕터를 수정할 것이며,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무역과 연계하는 새로운 조항들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